

신학과 철학의 언어로 풀어낸 과학과 종교, 그 관계의 수수께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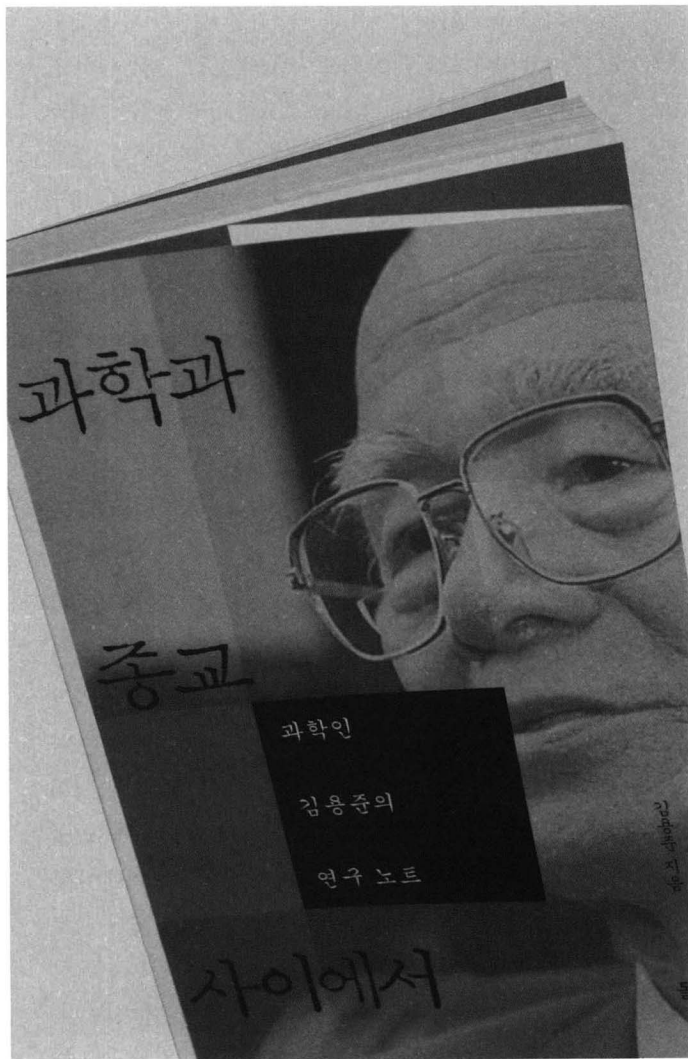
글 | 송병욱

‘과학과 종교’라는 주제는 식자간에 흔하게 회자되는 관심대상이기 때문에, 이 주제로 다룬 책들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고 그 내용도 다양하다고 알고 있다. 이 주제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이유는 과학과 종교가 인간의 삶을 이끌어가는 근본적인 원리이자 원동력이 되기 때문일 것이다. 다시 말해서 과학과 종교는 크게 보아서 인간의 삶을 이루는 두 축으로서, 서로 대립하면서도 상호 보완하는 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들 사이의 관계가 아니면 그 접점을 투명하게 밝혀내는 일은 결코 한 시대의 지성이 감당할 수 없는 방대하고도 난해한 작업임에 틀림없다. 그래서 이 두 분야의 통일적 연관성을 찾고자 하는 오랜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현실적으로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난제가 되어 왔다. 이런 이유로 과학과 종교라는 주제로 이제까지 우리나라에서 출간된 책들 중에서 설득력을 지닌 책을 찾아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과학과 종교 사이에서》의 저자 김용준 박사의 식지 않는 열정과 지적 뒷받침 없이는 결코 이루어낼 수 없는 다양한 자료들, 그것도 최근에 집중적 조명을 받으면서 활발하게 논의되는 풍부한 자료들을 접할 수 있는 여건조성과 관계된 주제의 성질에 따라 인접학문으로 자유자재로 넘나들면서 입체적 탐구를 시도한 것은 높이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유능한 학자라 할지라도 자기가 전공하는 제한된 특정 분야에서 일정수준에 오를 수 있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런데 저자는 한 분야가 아니라 인류학, 고고학으로부터 시작해서 철학, 물리학 등 관련된 인접학문을 총 망라해 다루었고 특히 생물학, 인지과학 그리고 신학에 있어서는 입체적 탐구가 더욱 돋보였다. 무엇보다도 인접학문을 총 망라해서 공유될 수 있는 정보와 지식을 찾아내고 따라서 일관되고 통일된 안목을 제시할 수 있는 학자는 우리나라에서는 많지 않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처럼 학문적으로 척박한 풍토에서 이러한 책이 나왔다는 것은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진 전공 학자들에게는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올 것이고 지적으로 궁핍을 느끼는 일반 독자들에게는 높은 지적 양식이 되어줄 것으로 믿는다. 저자는 어느 분야에서도 난해한 내용을 정리해서 독자가 이해하기 쉽게 분명한 언어로 핵심을 잘 짚어주는 일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먼저 저자가 이 저서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 줄거리를 나름대로 잡아 보았다. 평자는 이 작품을 인간의 심오하고도 신비에 둘러싸인 근원을 찾고자 하는 지적 욕구와 이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혼의 열정이 빚어낸 드라마에 비유하고 싶다. 그것은 흥분과 긴장을 떨칠 수 없는 드라마였다. 저자가 니체의 글을



《과학과 종교 사이에서》
김용준 지음 | 돌베개 | 400쪽 | 값 18,000원

원용하여 지적한대로 인간이 자연을 파악할 때 첫째 물질적 원인에 대한 물음을 갖게 되고, 둘째는 첫째 물음에 대한 답을 이성에 의지할 뿐 어떤 신비나 신화에 의지하지 않으며, 셋째 모든 것은 하나의 통일된 원리로 환원되어야 한다는 것이 '철학의 근본이념'이라고 잘라 말한다.(26쪽) 물론 이것은 니체만의 생각이 아니라 지금도 변함없는 대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근대 자연과학을 비롯해 철학도 이 원칙을 배경으로 나온 것이며 이것이 환원주의라는 말로 통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기본 원칙이 저자의 지적대로 지켜지지 않는 현상은 근·현대뿐만 아니라 이미 인류의 시원에서부터 싹터 오고 있었다. 가령 '신' '정령' '운명' '법칙' 등의 개념은 철학이 만들어낸 개념이 아니라 철학이 시작하기 훨씬 이전에 인간에게 '상속'된 것이라고 저자는 지적한다.(27쪽) 인간이 자연으로부터 진화해서 의식을 갖게 된 이후 인간의 역사가 신화의 세계에서 시작해서 철학과 과학의 세계로 옮겨갔다는 사실이 이를 확인시켜 준다.

앞에서 과학과 종교로 표현된 두 축이란 '철학의 이념'과 '상속'이란 말로 바꾸어 말할 수 있다. '철학의 이념'에 따라서 자연을 탐구한다는 것은 경험적 자료와 이성원리가 일치됨을 말하는 것이며 모든 자연과학적 탐구의 결과는 이것을 실증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이것이 저자가 저서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수록한 문헌적 자료들을 통해서 집요하게 천착해온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면 "뉴턴의 변화에 관련된 유전자까지도 탐지할 수 있게 되었다(217쪽)" "감정에서 느낌에 대한 느낌에 이르는 완전한 경로(282쪽)"가 밝혀졌다는 것, 그리고 물론 가정이지만 호킹이 말하는 우주의 신비를 알아낼 수 있다면 그것은 인간이성의 궁극적인 승리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헤아리게 된다는 것 등이다.(158쪽) 이런 측면은 결국 철학의 이념, 곧 경험적 자료와 이성의 힘에 의해서 탐구대상인 종교현상의 정체도 밝혀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한다.

그런데도 위의 서술과는 상반되게 '의식하는 마음의 문제'는 아직도 오리무중이라는 게 솔직한 고백이라고 저자는 술회한다.(219쪽) 종교현상이 경험적 자료와 이성의 힘에 의해서 탐구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분야의 지식이 양적으로 축적된다 해도 더 이상의 진전 가능성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365쪽) 더 나아가서 '인간 원리'와 이것의 연장선상에서 나오는 '너무나 심원한 설계' (349쪽) 개념 등도 탐구 전망을 흐리게 한다. 지면 관계로 너무나 '심원한'이란 표현만을 가지고 볼 때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어쨌든 경험적 실증적 영역,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실증과학의 기반을 이룬 '철학적 이념'의 영역을 넘어서고 있다는 말이다.

그래서 과학과 종교의 근원적인 관계는 여전히 풀 수 없는 수수께끼라는 것이다. 그런데 수수께끼의 모든 것은 저서의 마지막 17장에서 다음 신학과 철학의 용어들로 옮겨온다. 물론 난해하고 상징성 짙은 글을 몇 개의 용어로 압축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한 일이지만 굳이 말하면 그것은 '고난의 하나님' '정보미래' '자기를 비워' '주체성' '선형성'과 '무' 그리고 '초월의 지평' 등이다. 판넬 베르그의 말대로 신학이 철학, 자연과학 등과 대화를 마다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이 개념들은 다시 철학적, 신학적 고찰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저자는 더 이상의 상세한 소개 없이 마지막 장을 닫고 있다.

제1장 인간의 탄생과 과학에서 "나는 양자역학의 두 거장들이 나는 대화에서 지금 우리가 다루는 과학과 종교에 대한 이해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저자는 말한다.(25쪽) 두 거장이 나는 대화내용의 요지는 원자에 관한 상은 비록 경험에서 나왔지만, 그래서 고전 물리학의 직관 언어와 동일한 면을 취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험적 직관언어와 동일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조금 아쉬움이 남아 있다면 그것은 마지막 17장에서 나온 개념들과 이해의 실마리를 가지고 있는 물리학의 두 거장이 나는 대화가 어떻게 연결되고 이해될 수 있는지를 밝혔으면 하는 바람이다.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황무지나 다름없는 미개척분야를 이처럼 깊이 천착해 들어갔다는 것은 높이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추천사**

● **이 글을 쓴 송병옥은**

연세대 물리학과와 동대학원 철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튀빙엔 대학교 철학과에서 철학박사학위를 수여했다. 건국대학교 철학과 교수와 한국과학철학회 이사를 역임했으며 현재 한국헤겔철학회 편집위원 및 고문으로 있다. 지은 책으로 《철학을 찾아서》(철학과현실사, 2000), 《형이상학과 자연과학》(에코리브르, 2004) 등이 있다.

갈수록 어려워만 가는
인간들을
껴안는
지극한 연민

글 | 조용호

속을 다 보여주고도 이 영악한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앞가슴을 열어놓고 투명하게 가슴 속의 진실을 드러내놓고 살아가도 이용당하지 않고 오히려 대접받을 수 있는 세상은 없을까. 아무리 자고 새면 휘휘 돌아가는 세상이라지만, 변하지 않고 한자리에서 빛을 발하며 인생과 우주의 등대 노릇을 하는 별 같은 불변의 가치는 없을까. 다람쥐 쳇바퀴 돌리는 일상에서 조금만 일탈해도 세상으로부터 낙오될 것 같은 두려움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신을 찾을 수 있는 길은 없을까. 크고 작은 폭력들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비루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들이 그 폭력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길은 없을까.

소설가 임동현(48)의 두 번째 소설집 《별》(문이당)을 읽다보면 이런 상념들이 저절로 생겨난다. 1985년 '월간문학' 신인상으로 문단에 나온 지 20년 만에 내는 두 번째 소설집이니 과작으로 여겨질 법도 하지만, 임동현은 그동안 '민통선 사람들' '행복한 이방인' 등 6권의 장편소설과 '가족식사' '풍경' 등 산문집 4권을 펴낼 정도로 부지런히 글밭을 일구어온 작가다. 그러나 장편이나 산문집과는 달리 단편소설은 정련된 사고를 압축해서 담아내는 장르인 만큼 작가의 세상읽기와 섬세한 감성이 보다 선명하게 드러난다는 점에서 이번 소설집은 각별히 눈여겨볼 만하다.

소설집 제목으로 뽑힌 작품을 비롯해 모두 6편의 중단편을 모아놓은 이번 창작집에는 작가의 말처럼 "세상의 중심에 진입하지 못하고 다중의 시선을 받지 못하는 소외의 울타리, 폭력의 울타리에 갇힌 인물들"이 공통으로 등장한다. 《아이 러브 토일렛》의 주인공은 전공이 같은 교수의 정년퇴임만을 기다리는 만년 강사인데, 어쩌다가 사기꾼들에게 걸려들어 어쭙찮은 아파트마저 날리고 교외선을 오가는 기차 화장실에서 변비를 다스리는 신세다. 그에게는 집도 중요하지만 '똥'을 다스리는 게 더 급하다. 당장 존재의 물리적인 터전이 날아갈 판에 하찮은 똥이란 놈이 속을 썩이는 형국이다. 소설 속의 지문처럼 "똥은 너무 잘 나와도 걱정이고 안 나와도 걱정"이다. 그러니 '똥 같은 세상'이라고 욕을 한다면 잘못된 표현이다. 누구에게 하소연조차 제대로 할 곳이 없는 답답하기 짝이 없는 탐욕으로 그득한 세상에 대해 '똥만도 못한' 것들이라고 하면 그나마 말이 될까. 주인공은 '하찮은 존재의 무게'를 새삼스럽게 깨닫지만 '하찮은' 그 사내의 무게를 인정해 주고 위로해 줄 대상은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는다.

《나는 풍란을 키운다네》의 주인공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외국에서 공부하고 돌아왔으나 그사이 아내가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으며 '나'를 원하는 대학을



《별》

임동현 지음 | 문이당 | 290쪽 | 값 9,500원

찾는 일에 몰두하는 중이다. 그는 오피스텔 지하의 꽃집 여주인에게서 뿌리를 길로 드러내놓고 자라는 풍란을 구입하곤 하는데, 사는 족족 풍란은 모두 죽어버린다. 작가는 “뿌리를 다 드러내 놓고 사는 사람과 양과 껌질처럼 알맹이를 깊이 감춰놓고 사는 사람”의 두 부류로 인간들을 분류한다. 풍란처럼 뿌리를 드러내놓고도 잘 살아가려면 환경이 중요한 것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양과껌질형 인간들은 도처에서 볼 수 있는 흔하디흔한 유형이지만, 풍란형 인간들은 드물 뿐 아니라 설혹 존재한다 하더라도 비정상적인 존재들로 치부당하게 마련이다. 작가는 이 작품에서 ‘뿌리를 드러내놓고도’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절망적으로 탐색하지만, 현실의 리얼리티는 그의 비원을 냉정하게 비웃는다.

〈별〉의 주인공은 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좋은 조건의 직업을 지녔다. 그렇지만 자본주의 사회의 첨단에서 주식을 사고파는 애널리스트를 직업으로 지닌 그 또한 자고나면 휘발돼버리는 가치 앞에서 절망하고 택시기사를 자처한다. 그이 앞에 잃어버린 시간을 되살리는 가짜 골동품 제조업주 여인이 나타난다. 그 여인은 엉뚱하게도 그와 더불어 격렬한 정사를 마치면 별을 보고 싶어한다. 남자는 여인의 공장 주변을 몰래 배회하며 자신도 골동품의 흠을 없애는 일을 배워보고 싶은 소망을 품는다. 상대적으로 안온하고 평화로웠던 옛날로 다시 돌아가 숨을 쉬고 싶은 갈망 때문이다.

그러나 옛날을 완벽하게 복원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소설 속의 여인은 “사람들은 모두 옛일을 만들기 위해 잠을 자는 것”이라고 자조적으로 말한다. 물리적으로만 따진다면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다. 현재를 의식하는 순간 그것은 과거가 돼버리기 때문이다. 우리가 인지하는 별빛조차 수억 년 전에 쏘아진 것 아닌가. 그러니 적어도 변하지 않는,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가슴 속의 별을 갈망하는 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비원일 따름인가. 작가는 이 묵직한 중편에서 존재의 덧없는 고뇌를 붙들고 탈출구를 찾는다.

이 밖에도 20년 동안이나 집배원 생활을 했지만 퇴직당하고 늘 정해진 길만 다녔던 관행에서 그제야 겨우 일탈을 꿈꾸는 ‘자전거를 타는 남자’나, 10년 동안 유지해온 회사의 문을 닫느냐 마느냐의 갈림길에 서서 이스라엘 여행을 떠나 종적을 감추는 ‘엔 케디의 잠 못 드는 밤’의 남자, 고아원 원장의 폭력에 희생당하는 은주누나(‘누나의 섬’) 들은 모두 세상의 ‘둘레’를 부유하는 존재들이다. 그 둘레의 인간들에게 희망은 있는가. 적어도 작가의 진술에서 그 희망은 보이지 않는다. 다만, 그 인간들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며 세상의 어두운 틈새를 조명하는 작가의 연민과 공감의 자세가 읽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여운을 남겨줄 따름이다.

사십대의 강을 이제 거의 다 건너간 작가가 작중인물의 입을 빌려 “마흔 넘은 남자에게 집이란, 아내와 자식이란, 그저 챙기고 건사해야 하는 대상 혹은 생활의 근거일 뿐”이라고 언급하는 대목은 쓸쓸하다. 몸과 마음이 지친 한국사회의 남자들은 “대부분 타의에 밀려 일자리를 잃었다거나, 이런저런 이유로 마누라와 갈라섰거나, 무슨무슨 보증을 잘못 서는 바람에 길거리에 나왔게” 된 이들이 태반이다. 물론 아귀다툼의 생존경쟁에서 용케 살아남아 어깨에 힘을 주고 살아가는 이들도 있겠지만, 임동현은 그런 이들보다는 어깨가 늘어진 사내들에게 눈길을 보낸다. 이번 소설집의 진정성을 돋보이게 하는 질료는 바로 그 쓸쓸한 정서를 바탕으로 뿌리까지 다 내보이며 살아왔음에도 갈수록 야위어만 가는 인간들을 꺼안는 지극한 연민일 것이다. **◆◆**

● **이 글을 쓴 조용호는**

〈세계의 문학〉에 〈베니스로 가는 마지막 열차〉를 발표하며 문단에 나왔다. 소설집 〈베니스로 가는 마지막 열차〉, 산문집 《노래, 사랑에 빠진 그대에게》(돈키호테를 위한 변명)《키스는 키스 한숨은 한숨》이 있다. 현재 세계일보 문화부 기자로 일하고 있다.